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을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현 2길 6번지

전주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3명 '숙박 즐겼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숙박 관광 비중 74%로 집계
평균 체류기간 2.69일로 급증, 1인당 평균 지출액도 전년비 ↑

지난해 전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3명은 전주에서 숙박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힘써 달라는 전주시의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전체 관광객 중 숙박 관광 비중이 74%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전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3명이 전주에서 숙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전주 한옥마을 전경.

이는 전년 대비 24.2%나 상승한 것으로 전주가 단순히 당일치기 코스 아닌 '숙박하며 즐기는 여행지'로 자리매김 했음을 입증했다. 숙박 관광객이 늘면서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2.69일(전년 대비 0.99일 증가)로 조사됐으며, 외국인 1인당 총지출 금액도 1년 전(15만1482원)보다 85% 급증한 27만18659원을 기록했다. 여행 형태는 패키지보다 개별 여행(77.1%)이 주를 이루었으며, 재방문율도 16.7%까지 상승하며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

의 입소문과 높은 만족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들이 전주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 및 문화유적 체험(77.1%)'이었으며, 경기전(55.3%)과 남부시장(37.9%)이 여전한 인기를 보인 가운데 최근에는 전주천(21%)과 국립전주박물관(20.2%)의 방문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며 관광 동선이 확장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주 관광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2점으로 매우 높았고, 특히 치안(4.77점)과 음식(4.54

점) 부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언어소통(4.11점)과 대중교통(4.22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 긍정적인 지표"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고도화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에서 열린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 현판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등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농번기 눈앞... 농촌 인력 수급 관리 체계화

도,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가동
중개센터·계절근로자 연계
인력 수급 상황 실시간 관리

를 비롯해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허수중 삼골농협 조합장,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은 △농번기 인력 수요·공급 현황 실시간 관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도시 인력 일손돕기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지원 등 인력 수급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 공급 기반도 함께 확충한다. 농

촌인력중개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인 53개소(공공형 18·농촌형 35)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전년 대비 약 52% 늘어난 1만2752명을 확보해 연인원 135만명 수준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개센터와 계절근로자 제도를 연계한 집중 지원체계를 갖추고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농촌 인력 부족은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라며 "상황실을 구심점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AI 기반 차세대 대체단백 소재 개발

도, 농식품부 주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공모 선정
5년간 84억 투입... 식품진흥원과 공동 수행 산업화 연계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미래대응식품)' 공모에 선정돼 대체단백질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AI 기반 차세대 지속가능 대체단백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사업을 총괄한다.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2030년 12월 까지 약 5년간 추진되며, 국비 76억원

과 전북자치도 매칭사업비 8억원 등 총 84억원이 투입된다.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를 총괄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소재 개발을 통해 기존 대체단백질의 맛, 식감, 영양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원천기술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과제를 계기로 도내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

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계한 산업화와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대체단백질 산업을 지역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국가 R&D 과제 선정은 전북의 푸드테크 산업 기반과 연구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식품진흥원과 협력을 강화해 대체단백질 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오늘 전북서 '2027 수능 대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101개 고교 4만4000여명 응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북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101개 고등학교에서 총 4만4,598명의 학생이 이번 학력평가에 응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고1 1만5,257명, 고2 1만4,530명, 고3 1만4,809명이다. 시험은 고3의 경우 오전 8시 40분부

터 오후 4시 37분까지, 고1·2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 영역 순으로 치러진다.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다. 성적은 다음 달 9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인별로 제공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능 체제

적응을 돕기 위해 연간 평가 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학년별로 4회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며, 고3 학생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6월·9월)와 전북교육청 주관 모의고사(8월·10월)를 포함해 총 8차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새 학년 시작 이후 처음 치르는 시험으로,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